

인도네시아 바탐 강재모/김지연 선교사의 2021년 2월 선교 편지

작년에 유치부 교사로 10년 이상 섬겼던 이부 시아한이 암으로 인하여 주님 곁으로 떠나고, 올해도 며칠 전에 초등부 교사로 16년을 섬겼던 이부 카르타가 합병증으로 인하여 수 개월간 치료를 받던 중 호흡이상으로 50대 초반의 나이로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학생, 학부모, 교사, 목회자의 사망 소식이 체감적으로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2021년에도 많은 아픔의 사건들이 일어 날 텐데 . . .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인도네시아 땅에 흘러 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로써 살아가면서 사역적으로 정말 많은 기쁨과 감격, 보람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생각도 못한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느 법무 사무실로부터 저희 선교재단 앞으로 서류가 전달되었는데, 풍굴 지역 학교와 병원이 있는 땅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문서였습니다. 구입한지 20년도 넘은 땅,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지 15년이 지난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책임을 맡기 전 돌아가신 선교사님 때에 구입한 땅이기에 어떤 절차에 의하여 구입하였는지는 자세히 모르나 땅에 대한 공식 서류 사본(원본 서류는 선교 사역 이양 시에 받지 못함)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되나 추가적인 재정과 에너지가 소요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2. 선교 편지 # 페이스 북을 통하여 나누었던 사역들을 사진과 함께 나눕니다.

- <1월 29일> **1. 에벤에셀 학교 정문 입구의 모습입니다** 저희 학교는 언덕을 비스듬이 절개하여 세워진 학교라서 입구가 경사지고 좁았습니다.
2. 유치원으로 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십여년간 계속 확장 공사를 하며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3.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차량, 학생들이 동시에 등하교 하면서 사고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4. 수 년간 부족한 교실 증축 이후 식당 그리고 운동장 정비를 이어 담장 그리고 이번에는 정문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 관계로 수 개월째 안전한 공사가 이어질 수 있어서 한편으론 감사합니다.
 6. 다음 달 부터는 교대로 일부 학생들 등교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넓어진 정문으로 안전하게 등교할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 <1월 29일> **1. 유치원과 식당 앞에 블럭을 깔고** 있습니다. 2층까지 공사를 마치고 비로소 학교 운동장과 정원을 정리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2. 어린 시절 무엇을 보면서 자라는가 또한 주요한 교육이라 생각되어 가능하면 깨끗하고 정리된 학교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3. 코비드 사태에도 계속해서 학교를 건축하고 정비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4. 주님께서 수 많은 돕는 손 길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땅에 믿음의 학교를 세워 주시고 가꾸어 주셨습니다.



(2월 12일) 1. 에벤에셀 학교를 설립하신 고 조기술 선교사님 소천 10주기를 맞이하여 기념석판을 학교 입구에서 가까운 초등학교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2. 옆 사진 왼편은 2005년 초등학교 건물을 완공하고 만든 기념판이며, 오른편은 2021년 2월 10주기 기념석판입니다.

3.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고전3 장 말씀과 같이 조선교사님께서 시작하신 에벤에셀 학교를 40여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4. 지금의 학교가 있기까지 기도와 눈물 그리고 귀한 헌금으로 헌신하신 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월 12일) 오늘 아침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1. 몇 달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집과 병원에서 치료를 병행하던 교사 이부 카스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 지난 16년간 저희 초등학교 교사로 귀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 .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었지만. . . 최근 인도네시아에는 예년에 비하여 세상을 떠나는 소식들이 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3. 몇 주 전 집으로 심방을 갔었는데 더 자주 심방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입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월 15일) 1. 오늘 저희 에벤에셀 학교는 정부의 거리두기 원칙을 따르며 **유치원부터 거의 일 년 만에 등교**를 하였습니다.

2. 특히 유치원은 1년 과정이기에 코로나 가운데 입학생 모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온라인 수업도 불가능하였습니다.

3.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각 가정별로 모아서 직접 방문하며 지금까지 수업을 이어 갔습니다.

4. 평소보다 많은 시설과 추가 물품(손 씻는 세면대, 손 세정제, 체온계, 마스크)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인도네시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전 국민의 70퍼센트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라서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6. 그래도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교육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생님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2021년 2월, 3월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풍굴지역 에벤에셀 학교 부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20년이 지나서 주장하는 거짓된 사람의 잘못을 밝혀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풍굴 지역 사역이 정상화 되게 하소서

- 저희 에벤 에셀 학교는 뱅콩과 풍굴 두 지역에 있습니다.
- 평소 제가 항상 나누는 학교 사역 이야기는 뱅콩 지역의 학교입니다.
- 풍굴 지역 학교는 제가 책임을 맡기 전에 이미 운영에 있어서 현지인 교장이 자신이 운영권이 있기에 저희 재단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 풍굴 학교의 소유권과 운영권이 저희 재단에 있지만 선교지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장기적인 목표와 체계적인 사역 이양의 중요성, 한국과 선교지의 특수성 이해 등 선교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도 법류 대리인으로 Pak Tomi(박토미)씨를 통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2. 계속 진행 중인 21년 여름 시작되는 신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하여

- 코비드 사태로 바탐의 대부분 기독교 사립 학교가 신입생 모집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에벤 에셀 학교 또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주어 정상적인 교육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2월 27일 현재/목표 모집 인원: 유치원 43명/60, 초등 61명/100, 중등 21명/60, 고등 13명/40

3.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 코로나 사태 가운데 있지만 1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학교 등교가 다시 재개되면서 교사들의 마스크(매월 약 2,500개)가 필요합니다. 후원의 손길이 연결되도록(바탐 구입시 50개 한화 약5천원)
- 고등학교는 이미 등교 중이며, 2월 15일부터 유치원/ 22일 중등, / 3월 1일 초등 순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4.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비 납부율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학교 재정(교사 및 직원의 월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1월까지의 적자 가운데서도 지급하였지만 2월에는 75%만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모두가 함께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5. 에벤 에셀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하여 공부를 계속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성적 우수 장학생도 함께 선발 지원 중입니다.)

- 저희 학교의 학비는 매월 초등생의 경우 약 2만원, 중등생은 약2만 5천원, 고등생은 약3만 5천원 입니다 (현재 약 150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약 300여만원의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 기증받은 여름 샌달을 현지에서 잘 배분 할 수 있도록

- 고아위, 기독교 학교, 현지 교회, 빈민 지역, 소외된 오지 섬 등에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 다양한 지역으로 전달을 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비(운송비 등)가 소요되기에 일부는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판매경로가 열리도록
- 최근에는 바탐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현지 교회 월세를 위한 바자회 물품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 연락처 >

아이디: kangjaemo1004 강재모선교사 kangjaemo@hanmail.net / 김지연선교사 wec1004@hanmail.net

후원계좌 예금주 강재모/ 시티은행 8910153025501 우리은행 1002-730-785647